

바람은 타는 금속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카메라의 감광판이 지나치게 밝아져 화면이 하얗게 번질 때마다, 촬영기자는 자동노출을 잠그고 셔터 속도를 더 짧게 줄였다. 해가 지기 전인데도 하늘은 밤처럼 어두웠다. 대기권 위에서 길게 내려오는 불의 실이 수평선 위로 겹겹이 떨어졌고, 그 빛줄기 사이로 먼지와 재가 눈처럼 흩날렸다. 통신 채널의 소음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누군가가 “클랜 IIC, 다섯, 솔라흐마 스타”라고 외쳤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지 기둥 속에서 첫 실루엣이 나왔다. 넓은 어깨를 가진 머로더 IIC가 앞장서고, 워해머 IIC가 그 뒤를 받았다. 측면으로 부풀어 오른 토르소의 현치백 IIC, 균형 잡힌 새도우 호크 IIC,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따라 나온 라이플맨 IIC가 빛을 반사하며 진흙 위에 발을 디었다. 어둠 속에서 그 금속 표면이 불길의 흔적을 누렇게 간직하고 있었다.

앞쪽 도로의 교차로에 드라코니스의 경량 메크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스파이더의 얇은 다리가 떨어질 때마다 지면이 작은 파장을 만들었고, 로커스트는 엔진을 두 번 세 번 쥐어짜듯 공회전을 하였다. 제너와 커맨도의 조종석에서는 억눌린 호흡이 마이크로폰을 타고 전역으로 흘러나왔다. 그들 뒤, 마치 벽처럼 늦게 움직이는 거대한 몸체가 있었다. 멀려였다. 가느다란 통신선이 바람에 흔들리고, 네 개의 어깨 포신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목표를 찾고 있었다. 탑재된 사격통제기의 음성 알림이 동조에 실패했는지 불규칙하게 웅웅거렸으나, 파일럿은 침묵했다. 그가 방금 전 정비병에게 중얼거린 말은 기자들의 메모장 위에서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그 문장 끝에 밑줄이 진하게 그어져 있었다. 탈출장치가 죽어 있다. 살아서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

먼저 소리를 낸 쪽은 클랜이었다. 현치백 IIC의 토르소가 짧게 뒤로 젖더니 무수한 금속성이 한 번에 터졌다. 화면의 하단을 가로질러 불꽃들이 엇갈리고, 그 불꽃이 첫 번째 코만도의 복부를 관통했다. 카메라의 줌이 본능적으로 확대되었다. 커맨도의 정면 장갑판이 안쪽으로 찌그러지면서 엔진의 열기가 상처 부위에서 새어 나왔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채널을 가르다 끊겼다. 머로더 IIC가 거의 동시에 오른팔을 흔들며 연속 사격을 가했다. 초탄이 제너의 오른쪽 어깨를 쳤고, 이어지는 탄들이 중심선을 따라 내려와 무릎과 발목을 차례대로 벗겨냈다. 제너는 앞으로 주저앉아 땅을 긁었다. 복부의 미사일 해치가 마지막 반사를 내뿜고 닫혔다.

드라코니스의 반격은 한꺼번에 왔다. 스파이더가 스러진 제너의 오른쪽, 땅을 박차며 워해머 IIC의 사각으로 뛰어들었다. 카메라의 프레임 좌측 상단에서, 짧고 빠른 펄스 레이저의 빔이 파도처럼 출렁였다. 로커스트는 크게 호를 그리며 새도우 호크 IIC의 왼쪽 측면을 따라붙었고, 코만도의 SRM 포드가 연속적으로 바닥을 스치며 시야 하단에 불꽃의 점선을 남겼다. 기자는 두 줄의 수평선을 그어 시야 중심에 머로더 IIC를 잡아놓은 채, 측면에서 밀고 들어가는 경량 메크들의 움직임을 주석처럼 메모했다. “거리 130, 110, 90. 근접한다.”

그 순간 멀러가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단순했지만, 지진처럼 복부를 울렸다. 어깨의 대구경 오토캐논이 좌우로 살짝 벌어지고, 누적된 탄약의 무게가 고관절을 짓누르며 한 번 흔들렸다. 첫 일제 사격은 머로더 IIC의 가슴을 가로질러 나갔다. 불꽃보다 소리가 먼저 도착했다. 기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카메라를 끌어안았다. 새하얀 철가루가 비처럼 쏟아졌고, 미세한 입자들이 렌즈 앞에서 춤을 춘다. 머로더 IIC가 반발로 몸을 틀었지만 늦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이 오른쪽 무릎을 찢어냈고, 세 번째 사격이 발목의 서보를 완전히 부러뜨렸다. 거대한 기체가 한쪽으로 무릎을 꿇을 때 제너의 조종석에서 마지막으로 짧은 환호가 튀었다.

워해머 IIC가 스파이더를 놓치지 않았다. 허공에서 번뜩인 푸른 섬광 두 줄이, 그 얇은 다리와 복부 사이의 공기를 찢었다. 충격파가 한 박자 늦게 기자들의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스파이더가 잡아먹힌 듯한 침묵 속에서 천천히 반쯤 뒤틀린 채 바닥으로 내려앉는다. 새도우 호크 IIC는 록커스트의 끈질긴 물기에도 불구하고 코스를 크게 수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왼팔의 하드포인트에서 짧게 번쩍이는 불빛이 록커스트의 포구를 꺼뜨렸다. 커맨도의 SRM 궤적이 워해머 IIC의 어깨에서 작은 산발을 만들었고, 그 불꽃에 놀란 새처럼 먼지 속에서 뿔쳐나온 제너의 오른쪽 팔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다.

기자는 뷰파인더를 벗겨내고 눈으로 직접 봤다. 렌즈 뒤에서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게 전해진다. 소리는 카메라가 기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냄새는 필름 위에 남지 않는다. 타는 플라스틱 냄새, 합금이 부서질 때의 희미한 단내, 식지 않은 윤활유의 쓴 향. 그 사이로 코를 찌르는 오존 냄새가 얇게 섞여 있었다. 캡슐형 마이크의 신호가 붉게 떠오르고, 소음제거 알고리즘이 굉음을 낮은 웅성거림으로 깎아냈다. 그러나 그 모든 필터를 뚫고 누군가의 기침과 누군가의 짧은 기도가 섞여 들렸다. “신불, 부디.”

두 번째 커맨도가 발목까지 진흙에 잠겨 서 있었다. 포구 위의 연기가 바람에 휘어질 때, 헌치백 IIC의 토르소가 다시 한 번 뒤로 젖었다. 이번의 탄막은 앞의 것과 달랐다. 기자는 메모에 ‘갈무리’라고 적었다. 커맨도의 왼쪽 어깨에서 앞장갑까지 한 번에 쓸어버리는 선이 그려지고, 기체의 복부에서 짧은 불꽃이 뿜어 나오다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버팀프레임이 비명을 지르듯 휘고, 무릎 관절의 베어링이 뜯기는 소리와 함께 커맨도는 몸을 접으면서 숨이 끊겼다. “타임코드 9:13”, 카메라맨이 속삭였다. 기자는 그 숫자를 메모장 위에 크게 적어, 나중에 반복 재생할 수 있도록 빨간 박스로 테두리를 쳤다.

그 사이 멀러는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좌우 어깨의 반동이 리듬처럼 보였다. 그의 상체가 뒤로 밀리고 다시 앞으로 곧게 서는 동안 머로더 IIC는 비틀거리다가 옆으로 부서져 내렸다. 라이플맨 IIC가 한 박자 늦게 멀러를 향해 돌아섰을 때, 멀러의 오른쪽 어깨에서 튀어나온 포탄 다섯 발이 라이플맨 IIC의 코어 상단, 목과 가슴이 만나는 좁은 구간을 긁고 지나갔다. 스파크가 옷감처럼 흩날렸다. 그러나 라이플맨 IIC의 차가운 동공 같은 센서가 다시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돌아왔다. 그 무표정함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선명했다. 라이플맨 IIC의 팔이 빠르게 들렸다. 연발된 슬러그가 멀러의 왼쪽 어깨를 뜯어내며 날아갔다. 금속의 비, 불꽃의 살갗, 두 개의 거인이 서로의 심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기자는 드라코니스 통신망의 음색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말끝의 떨림이 잦아들고, 지시어가 줄어들고, 숨이 길어졌다. 살아남은 경량 메크들이 마지막 기동을 걸며 곁으로 흩어질 때, 제너의 조종석에서 가라앉은 목소리가 나왔다. “멀러 앞을 비워라.” 그 명령은 손실을 계산하는 어조가 아니었다. 어떤 현장을 많이 본 공보장교가 기자들에게 눈짓을 했다. 렌즈를 더 낮추고, 프레임을 더 넓혀 잡으라는 신호였다. 그때 멀러의 조종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채널까지 뚫고 들어왔다. 음성 변조도, 호출부호도 없었다. 살아 있는 목소리였다.

“코디네이터 사마, 반자이.”

그 외침은 스피커를 찢고 흘러나왔으며, 맑지도, 거칠지도 않았다. 단단했다. 기자는 손가락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셔터가 한 박자 늦게 먹었다. 멀러가 달려갔다. 처음에는 느렸다. 철제 숲이 움직이는 듯했다. 두 번째 보폭에서 그의 발이 깊이 잠겼다. 세 번째 보폭에서 어깨가 낮아졌다. 라이플맨 IIC가 팔을 벌리고 포구를 바닥으로 내리꽂으며 막으려 했지만, 그 직선의 의지 앞에서 지형의 퍼스펙티브와 시간의 길이가 함께 접혔다. 두 거인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기자는 줌을 풀었고, 프레임을 넓혔다. 화면 중앙에 서로가 서로의 시야를 가리는 어둔 덩어리 두 개가 겹쳐졌다. 그 순간 멀러의 복부측 내화 패널이 안쪽에서 밝게 빛났다. 그 빛은 카메라의 센서가 실제로 감지한 광량이라기보다, 기자의 뇌가 각성하는 빛이었다.

폭발은 먼저 무음으로, 그 다음엔 모든 소리를 한꺼번에 터뜨리며 도착했다. 영상에서는 하얀 꽃이 피어났다. 화약과 연료, 남은 탄약이 한 번에 타오르면 불꽃의 테두리가 깃털처럼 보인다. 라이플맨 IIC의 가슴이 앞으로 열리며 분홍빛 금속이 마치 입처럼 벌어졌다. 그 틈새로 압축된 공기가 흰 김이 되어 나왔다가, 곧 전체가 하나의 광구로 변했다. 프레임의 사방이 흔들리고, 먼지가 카메라의 마이크를 가득 채웠다. 자동소음 제거가 패턴을 찾지 못해 화면에는 너울거리는 회색 줄무늬가 생겼고, 기자는 반사적으로 렌즈 앞에서 손을 치웠다. 손등에 작고 뜨거운 점들이 와닥닥 떨어졌다. 금속의 비말이었다.

그 다음 몇 초 동안 그들은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잿빛이었고, 모든 소리가 먼지 속으로 잠겨 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동안, 작은 파편들이 더디게 떨어졌다. 불빛들은 제각각의 생애를 살다 꺼졌다. 누군가가 무릎으로 땅을 짚고, 누군가가 카메라의 전원을 한 번 껐다 켜 다음, 남은 전력을 확인했다. 프레임을 다시 고정했을 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거대한 원형의 구덩이와 거기에 가득 찬 뜨거운 공기뿐이었다. 라이플맨 IIC의 팔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검은 조각이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멀리서 어깨 프레임은 알아볼 수 없게 구겨져 있었다. 두 기체의 이름은 한꺼번에 지워졌다.

먼 곳에서 타이어가 슬며시 벗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헌치백 IIC가 휘청이며 천천히 방향을 바꿨다. 워해머 IIC의 어깨가 깜빡이며 남은 냉각수를 토해냈다. 새도우 호크 IIC는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흘려보낸 뒤 천천히 일어섰다. 머로더 IIC는 아까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전투의 함성에서 일상의 호흡으로 돌아오는 중간 지점처럼 보였다. 경량 메크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조종사의 신호도, 잔여 발열도, 주변의 통신 핑도 사라졌다. 두 개 랜스가,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사실만이 먼지 속 냄새로 남아 있었다.

기자는 손등의 금속 비말을 털어내고, 다시 펜을 들었다. 글씨는 생각보다 단정했다.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사람의 손은 오히려 반드시 무엇인가를 붙잡는다. 그는 첫 줄에 시각과 위치를 적고, 두 번째 줄에 숫자를 적었다. 다섯과 여덟. 다시 다섯과 영. 셋째 줄에는 멀리의 이름을 적었다. 그 아래에 작은 점으로 ‘탈출장치 고장’이라고 썼다. 그리고 마지막 줄, 더 굵은 펜으로, 더 큰 글씨로 그는 말을 붙였다. 코디네이터 사마, 반자이. 글자는 똑바로 서 있지 않았다. 잔진동을 먹은 듯 조금씩 흔들렸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동료의 카메라에서 체크 비프가 울렸다. 파일이 자동저장되었다는 신호였다. 원격 송신기가 깜빡이며 녹색을 반복했다. 대기 상층의 전리층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패킷 손실률은 1% 이하로 잡혔다. 편집부에서는 곧 첫 헤드라인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할 문장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데스 프롬 오비탈을, 누군가는 경량 메크들의 무모한 접근을, 누군가는 헌치백 IIC의 참혹한 탄막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멀리의 마지막 돌격을 고를 것이다. 기자는 자신의 노트 한 가운데를 엄지로 눌러 잡고, 작은 사선을 그려 그 페이지를 고정했다.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글자들이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도록.

먼지 구름이 열어질수록 냄새는 더 선명해졌다. 금속의 비린내에 섞여 기름과 흙, 타버린 고무와 사람의 냄새가 함께 온다. 정면의 구덩이에서 뜨거운 공기가 부글거리며 올라오고, 그 공기가 기자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옆에 서 있던 헌치 코디네이터 담당 통역관이 천천히 헬멧을 벗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었다. 기자는 그의 옆모습을 찍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에 붙는 그 종류의 그림자는 어느 렌즈로도 정확히 담기지 않는다. 대신 그는 구덩이 너머, 아직 연기를 뿜고 있는 새도우 호크 IIC의 왼쪽 허리를 길게 촬영했다. 거기엔 SRM 탄두의 파편이 박혀 있었고, 작은 균열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경량 메크 두 기가 잠깐 흔들려 놓은 균열. 전황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 전투가 단순한 일방이 아니었다는 증거. 기사에서 그 한 컷은 많은 것을 말해줄 것이다.

통신망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좌표를 불렀다.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클랜의 다른 스타, 드라코니스의 다른 랜스들, 그리고 다른 기자들. 누구는 땅에 엎드려 셔터를 누르고, 누구는 트라이포드 위에서 zoom을 당기며 고개를 약간 기울여 피사체의 수평을 맞추는 것이다. 누구는 펜으로 글자를 굵게 덧칠하고, 누구는 키보드 위에서 한 글자를 지우고 다시 입력할 것이다. 전쟁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쓰인다. 너무 많은 불빛과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먼지와 너무 적은 시간이 뒤섞여, 한 줄의 문장으로 응고된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뜨거운 공기 사이로 반사된 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마치 물 표면의 깜박임처럼 느껴졌다. 그 아래 어둠은 말이 없었다. 그는 메모를 덮고 카메라를 어깨에 올린 채 한 발짝 물러섰다. 누군가의 삶이 끝난 지점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계속한다. 이것이 기록자의 업이고, 오늘은 그 업이 너무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를 부인하지 않는다. 꼭 맞게 들어맞는 자리가 있다면, 이 기록은 언젠가 그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뒤에서 바람이 한 번 크게 불었다. 먼지가 다시 떠올랐다가, 이내 주저앉았다. 그리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불덩이들이 또다시 저 위에서 작은 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다음 것도 온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셔터를 반쯤 눌러 초점을 잡았다. 렌즈 안의 세계가 한순간 또렷해졌다가, 다시 숨을 고르는 듯 흐려졌다. 그 숨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본 것을 쓰겠다. 오늘 들은 것을 쓰겠다. 오늘 사라진 이름을 쓰겠다. 그리고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불꽃의 무게를 그대로 옮겨 놓겠다.